

#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와 마르탱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패션에 표현된 여성의 몸

신 하 나\* · 이 민 선<sup>+</sup>

상명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sup>+</sup>

## Women's Body in the Fashion of *John Galliano* and *Martin Margiela*

Ha-Na Shin\* · Min-Sun Lee<sup>+</sup>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 Sang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angmyung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09. 10. 6, 심사(수정)일: 2009. 11. 2, 게재확정일: 2009. 12. 22)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a perspective that can enhance the understanding about the mechanism of fashion change. The starting idea of this study is that fashion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ideal body image of the specific society or individual. The theoretical framework about the ideal body image has been studied by the literatures on the subject and it is verified by the analysis of *John Galliano & Martin Margiela's* fashion 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alliano* exposes the woman's body as a sexual symbol which is articulated by men's eyes. *Margiela* describes the woman's body as human being which doesn't highlight any sexual characteristics. Second, *Galliano* emphasizes the body conscious silhouette whereas *Margiela* perceives the body as a whole, rather than looks into each body part. Third, *Galliano* uses lots of decoration to make display luxurious. *Margiela* restrains himself from using decorations and tries to create images by interaction between the clothes and bodies. Forth, *Galliano* expresses the eroticism by accentuating eyes and lips with strong color cosmetics. *Margiela's* fashion is not dazzling with makeup. He even covers the face with fabrics. Aesthetics in all societies is articulated by their hidden social power groups, and then it has influence on taking shape of the ideal body image and the mainstream of fashion. But the innate characters of individuals offer challenges to the fashion majority. The tension between the social power and individual character makes and changes the fashion.

Key words: body image(몸 이미지), individual(개인적), John Galliano(존 갈리아노),  
Martin Margiela(마르탱 마르지엘라), society(사회적)

## I. 서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몸에 대한 시각과 인식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플라톤에서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분리되어 분석되어온 몸은 20 세기에 들어 육체와 정신이 일체성을 이루는 전일적인 개념으로도 이해되어지고 있다.

인간의 몸은 잡지와 신문, TV, 광고에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또한 많은 작가들과 화가들, 사진가들이 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작품 속에서 그들만의 사유와 표현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다. 몸은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장소로서 예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들이 공존하는 장소이자 대상이 되었다.

몸을 논쟁의 쟁점으로 위치시키는 것은 몸이 사회의 주된 강자와 약자, 지배와 피지배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구조와 맞물려 있어온 역사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몸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이며 가부장제 논리 하에서는 남녀의 몸 사이에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차이를 가정하고 양성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왔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남성의 우월주의를 뒷받침해오며 사회적 제도·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에게 의해 지배받는 여성의 몸 이미지를 확산시켜 왔다. 푸코가 말하는 비 위협적인 “유순한 몸”, 즉 문화적 생활 규범에 의해 규제된 몸을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인간의 몸이 어떻게 통제되고 억압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sup>1)</sup> 남성들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여성의 몸을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소비의 사회로의 전환은, 포스트모던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자각과 여권이 신장하게 되며 여성의 주체적 의식을 일깨우게 되었다. 이러한 여권의 신장은 개인의 부나 권력으로서의 상징적 대체물로 사용되는 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Ponty)는 지각적 현상학에서 몸은 세계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과의 소통하는 관계임을 주장한다.<sup>2)</sup> 조각

가 안토니 고펠리(Antony Gormley) 또한 인간의 몸을 몸과 정신을 분리된 것으로 보는 서구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던져진 존재’<sup>3)</sup>로서 보다 본질적인 관계로 몸을 이해한다. 과거의 몸이 정치권력 간의 전쟁터였다면 현재의 몸은 던져진 존재로서 솔직한 자신에 대한 고백이며 자신의 위안이 되는 존재로 파악된다. 이러한 흐름은 미술에도 적용되어 몸이 작품의 매체가 아닌 직접적인 작품의 주체로써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며 더 나아가 패션에서도 여성의 몸에 대한 표현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에 표현된 몸에 관한 관념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의 흐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철학적 담론 및 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몸을 소비상품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 사회 구조적 관점과 여성의 몸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려는 개인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관점을 존 갈리아노와 마르탱 마르지엘라 패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의 몸에 관한 관념들을 사회구조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둘째, 여성의 몸에 관한 관념을 바탕으로 패션을 분석한다.

셋째, 분석을 통해 한사회의 패션에 담긴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으로 첫째, 인간의 몸에 관한 철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미학, 철학, 역사학, 사회학, 여성학 등의 문헌 연구를 진행한다. 둘째, 여성의 몸에 관한 인식의 두 가지 관점 즉, 사회적 자본주의에 의해 성적 대상물로 묘사한 관점과 인간적 관심에 의해 인간 본연 자체의 모습을 묘사한 관점을 고찰한다. 셋째, 여성의 몸에 관한 두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존 갈리아노와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작품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패션 관련 전문 서적 및 논문, 패션 잡지와 인터넷 자료 등의 다양한 사진 자료 및 비평을 토대로 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다.

## II. 몸 담론에 대한 철학적 관점

본 장에서는 몸에 대한 철학적 담론들을 통해 몸에 관한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1. 사회구조적 관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권력이 행사하는 장소 중의 하나가 바로 몸이라고 주장한다. 몸의 행동 범위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상호 연관된 기제들을 통해서 권력에 순응하는 몸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푸코가 설명하는 권력이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사물들을 관계 맺도록 하는 어떤 힘의 기능이며 장소의 체계들을 변화시키는 힘의 운동이자 효과이다. 새로운 체계의 담론이 등장하거나 지식의 새로운 대상이 구성되는 것은 권력의 움직임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 권력의 작용점으로 몸을 지칭하여 지식과 권력, 권력의 작용점으로서의 신체, 그리고 근대 훈육적 사회의 필수 조건으로서 신체에 대한 지식이라는 삼자를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분석 대상으로 부각시킨다. 당시 인체를 고통의 조합이 최대가 되도록 조작하는 것이 권력에 의해 실행된 신체조작의 기술이었고 신체는 그것에 가해지는 극단적인 고통을 통해서 절대 권력의 힘이 과시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sup>4)</sup>

푸코는 자신의 연구를 '몸의 역사' 그리고 몸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부여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묘사할 만큼 몸을 중요시한다. 몸의 역사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몸과 그것에 행사되는 권력'의 관계를 그려내는 일이다. 또한 여기에는 '점차 세련된 경로를 통하여 개인들과 그들의 육체, 몸짓 및 일상행위에 접근함으로써 '근대의 제도적 장치 속에서 권력의 '미시물리학'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검토하는 것도 포함된다. 푸코에게 몸은 단순히 담론의 초점이 아니라 일상의 관습들과 대규모 권력조직의 연결고리 그 자체이다.<sup>5)</sup>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현대사회를 소

비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소비사회로 규정하며 사물의 소비를 사용 가치 또는 상징 가치보다는 문화적 기호로서의 가치가 중요해 졌음에 주목한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필수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들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이 소비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됨에 따라 대중매체는 소비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광고를 통한 기호의 창출에 나서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광고 상품이 아니라 기호 그 자체가 되며, 구성원들은 기호를 욕망하고 기호를 소비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가 그가 말하는 소비사회의 특징이다.<sup>6)</sup>

보드리야르는 소비사회에서 바라본 인간의 몸을 소비대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귀중하며 멋진 사물로서 오늘날 광고, 모드, 대중문화 등 모든 곳이 범람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의 생산/소비의 구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육체로부터 분리된 표상과 결합된 이중의 취급을 이끌어내는 것, 즉 자본으로 물신 또는 소비대상으로 몸을 취급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투자되고, 동시에 물신 숭배되고 있다는 것으로서의 몸인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인간의 몸은 자본주의적 목표에 따라서 투자된다. 달리 말해서 육체가 투자된다는 것은 육체로 하여금 이윤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이며, 재소유된 육체는 주체의 자율적인 목적성에 따라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향락과 쾌락주의적 효율성의 규범적 원리에 따라서 또한 관리된 생산 및 소비의 사회의 코드와 규범에 직접 적합된 도구성이라는 제약 조건에 따라서 투자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은 하나의 자산으로서 관리·정비되고,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형식 중의 하나로서 조작되며, 전통적, 상징적인 사물에서 교환 가능한 기호로서의 사물로 이해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만들어낸 미 역시 자본이 만들어낸 사회적 형식에 불과하며, 소비에 의해 만들어진 차별은 여성의 몸을 자신의 내부에 있는 '자연적미'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리하는 몸은 '미'라는 형식의 덮에 걸림으로

써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미'는 아름다움의 물신 숭배 대상으로 교환가치이며, 사회의 일반적 교환가능성을 획득한다. 여성들은 자신을 위해 아름다움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욕구하는 것 '미'라는 사회적 코드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신체관리는 사회화의 과정일 뿐이다.<sup>8)</sup>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상징 폭력을 가시화하여 현실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그는 근본적으로 미리 전제된 의미로서의 사회적 차이들에 생물학적 차이들이 이용된다고 말한다. 이용된 이미지들은 각 행위자에게 성적인 구별 짓기에 부합하는 외부적인 표시들을 강조하거나 각 성에 고유하지 않은 행동을 금지하기 위해 자신의 성에 알맞은 활동을 고무한다. 부르디외는 이렇게 고무된 활동을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상징 폭력을 가시화하는데 그가 발견한 폭력은 여성들에게 상징적으로 강요된 신체적으로 일종의 '감금상태'다.

자유로운 현대에서는 여성이 '의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유행과 스타일의 의복이 존재하고 여성들은 자신에 취향에 의해 의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자유는 여성들이 전통적인 몸가짐에 대한 규범을 깨뜨렸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짧은 미니스커트와 몸에 딱 달라붙은 청바지를 입고 목선이 깊게 파인 니트를 입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차도르'를 뒤집어쓰고 있는 여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감금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부르디외는 충고한다. 신체의 과시를 통해 '여성해방'의 암시를 보려는 사람들은 과시 이전에 신체의 사용 자체가 남성적인 관점에서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9)</sup>

## 2. 개인적 관점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Ponty)는 일원론에 입각하여 데카르트적 코기토<sup>10)</sup>에 가리워져 있던 몸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몸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그는 플라톤, 데카르트식의 영원 불변의 진리 혹은 절대적 인식이라는 이상이 갖는

추상적인 사고방식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간을 삶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서구 근대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데카르트적 코기토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인간 정신이 절대적인 우월성을 포기한 메를로 폰티는 인간의 '몸'과 '지각', '세계'를 철학의 기초로 하여 온 몸으로 또는 몸의 각 기관들으로써 만나고 체험하는 구체적인 세계를 가장 중요한 철학 탐구의 영역으로 정식화한다. 그는 몸이 객체가 아니라 객체와 관계를 맺게 하는 조건이자 매개로서 살아가고 경험을 형성하는 것이다.<sup>11)</sup>

몸에 관한 현상학적 성찰에 의하면, 주체는 세계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마음도 물질과 공간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메를로 폰티는 '세계로 향한 존재'로서의 주체와 함께 '세계에 속한 주체', 즉 의식과 성찰뿐만 아니라 지각과 행동의 주체를 역설한다.<sup>12)</sup>

지각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상과 주체가 만나는 곳이므로 순수한 객관세계도 또 내적 세계도 아니다. 구체적인 대상성과 주체성이 열리면서 서로 만나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을 메를로 폰티는 '현상적 장'이라고 부른다.<sup>13)</sup>

그가 반성을 통해 밝혀낸 지각의 주체로서의 몸의 철학은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메를리 폰티는 철학의 출발점으로 언제나 반성되지 않은 것, 지금 여기의 '지각의 원천성'과 '체험된 몸'을 강조했다. 그의 철학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칙 이전에 먼저 내가 세계를 경험하는 사실을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기술하려는 것이다.<sup>14)</sup> 그에게 있어 몸은 세계에서 끊임없이 생동하는 가시적인 스펙터클을 가지며 세계에 삶을 불어넣고 내부로부터 자양분을 공급하고, 세계와 더불어 하나의 단일한 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몸은 내가 세계에 들어가는 방식이 되고, 나의 몸은 세계에 거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세계가 나와는 무관하게 저 편에 있는 객관적,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거주하는 의미의 공간임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 몸과 세계가 두개로 분리된 영역이라기보다는 서로 구분되면서도 '상호 얽힘'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sup>15)</sup>

멜리 폰티는 지각이 의식의 작용이 아니라 육화된 의식인 몸의 작용이며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여 의식에 반영하는 현상도, 대상을 능동적으로만 조직하는 지성적인 능력도 아닌 중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각은 경험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일대일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각 자료들의 총합이 아니라, 이미 세계 속에 존재하는 나의 몸이 이것들을 정리하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대상의 자극을 수용하는 측면과 몸이 그것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행동 양식의 측면이 각기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멜로 폰티에게 있어 지각은 곧 표현이며 몸은 이러한 지각과 표현을 수행하는 장소이다.<sup>16)</sup>

### Ⅲ. 미술에 나타난 몸에 관한 관점

본 장에서는 미술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몸에 대해 사회 구조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의 두 흐름으로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사회적 존재

##### 1) 모리무라 야스마사

모리무라 야스마라(Morimura Yasumasa)는 1951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하여 동경 시립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1985년부터 고전 영화 속에 자신이 등장

인물로 등장한 사진매체를 이용한 사진-퍼포먼스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진실의 재현에 대한 포스트 모던적 퍼포먼스를 시작하였고 페미니즘과 성적 소수 집단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시대적 상황과 어우러진 1980년대에 예술계에 데뷔하였다.<sup>17)</sup>

남성인 자신의 육체를 사용해 그 인물이 실은 여성이 아니고 여성인 척하는 남성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과시하여 이성애 성향의 남성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서구중심의 남성들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해왔다. 그의 작품들은 남성들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상식의 의미를 그리고 그 상식을 의심 없이 공기처럼 향유해 온 사실이 지닌 정치성을, 즉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힘의 관계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묻고 있다.<sup>18)</sup>

<그림 1><sup>19)</sup>마네의 '올랭피아'를 모리무라 야스마사는 <그림 2><sup>20)</sup>로 재작업 하였다. 이 작품은 현대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문화적 통제의 강제성을 대변하고 밝혀내는 작업이다. 만약 마네의 '올랭피아'가 그 자신의 시대의 시각적인 재현을 이끄는 권력 관계를 드러내 보여 주었다면 모리무라는 이러한 분석을 차용하여 더 진전시킨다.<sup>21)</sup> 마네의 그림이 백인 비너스와 아프리카 하녀의 신체를 통해 인종적인 측면을 다루면서 당시 부르주아 계층의 남성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있다. 즉, 남성 부르주아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일종의 권력이 작용하는데 여성은 이를 수동적으로 바라보여지는 상태로서 신체로 표현되었다.

모리무라는 백인과 아프리카의 신체가 접하고 있던 장소에서 아시아의 신체를 보여줌으로써 인종적인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키면서 신체를 남성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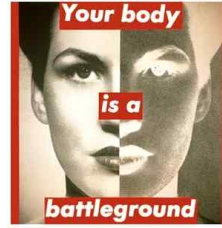
<그림 1> 올랭피아. 에두아르 마네. 1863  
http://www.crazy-art.co.kr



<그림 2> 초상·쌍둥이. 모리무라 야스마사.  
몸과 미술. 1988, p. 95.



〈그림 3〉 고바마의 마를린 먼로.  
 몸과 미술, 1994, p. 182.



〈그림 4〉 바바라 크루거, 당신의 신체는 전쟁터이다  
 (Your body is a battleground).  
 바디스케이프, 1989, p. 22.

로서의 위치를 버린 자신의 육체로 여성의 신체와 연결한다. 여장 남성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리무라는 규범화되고 정상화된 시각의 전체를 보여줌으로써 문화적 통제의 강제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sup>22)</sup> 귀족처럼 보이는 백인여성 창부와 흑인하녀의 자리에 동양인 남자가 대신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림 2〉는 계층의 계급적인 문제, 젠더, 인종문제가 지 드러내고 있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수동적인 태도로 사회적 통제 권력 안에서 요구되어 진다. 여성의 이미지는 남성이라는 관객을 즐겁게 하도록 규정되어 이러한 남성의 이미지 통제 과정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sup>23)</sup>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성들은 여성을 그들의 스테레오 타입에 맞추어 여성의 이미지를 통제하며 규정해왔고 여성은 권력의 주체인 남성의 시선을 붙잡기 위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에 부합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분장하고 치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 만들고자 하는 이상적 신체가 아닌 남성권력 안에 만들어진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를 모리무라는 남성이라는 자신의 신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 2) 바바라 크루거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는 현대 미술에서 주요한 매체로 부상한 사진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하여 제작한 일련의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까지도 매우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크루거는 특히 흑백의 이미지 위에 배열된 흰색 혹은 붉은 색

의 띠나 프레임 그리고 그 위에 자리 잡은 강력한 문구의 텍스트라는 자신만의 분명한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sup>24)</sup> 광고매체 속에 흔히 등장하는 과편화된 여성 이미지에 신랄한 텍스트를 첨가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양식을 구축한다. 크루거는 대중문화가 포스트모더니즘이 미술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80년대 초반, 저돌적·공격적인 문구와 이미지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sup>25)</sup>

〈그림 4〉<sup>26)</sup>는 크루거가 1989년 4월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대규모 낙태 합법화 행진의 포스터 제작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sup>27)</sup> 이 작품에서 그녀가 말하는 여성의 몸은 남성의 권력에 의한 남성의 시선으로 희생되어온 여성의 이미지로써 표현되어지고 있다.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켜 여성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현대사회 미디어의 부조리함을 비판한다. 궁극적으로 크루거의 작품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범람하는 매스 미디어, 그리고 소비사회의 시각문화를 비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처음 그녀의 작품은 여성적인 재료들 뜨개질, 실, 천, 보자기 등, 주로 섬유예술을 평면으로 풀라주해서 보여주는 여성적인 감수성이 다분한 것이었다. 이는 남성중심이 지배하는 미술관 문화에 도전하는 매체로 주로 페미니즘 여성 예술가들이 사용해 오던 것들이다.<sup>28)</sup> 그러나 80년대 이후 크루거는 사진매체를 텍스트와 함께 사용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과편적 이미지를 재현하고 여성에 가해지는 부계적 폭력과 억압을 고발한다. 현대 소비사회는 남성중심의 지배구조로 권력을 가진 남성을 주체로 상정하고, 여

성을 타자로 위치시켜 남성 중심적 지배사회를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구조 안에 여성의 이미지는 사회적 편견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크루거의 작품 안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2. 자연적 존재

### 1) 안토니 고펠리

안토니 고펠리(Antony Gormley)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그 매개체로 자신의 몸을 이용한 작가이다. 유럽을 떠나 인도 등지에서 명상수련을 했던 경험은 서구 전통적 인체조각을 재해석하며 새로운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작품 활동 내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탐구하고 그런 조각을 만들기 위한 시발점으로 자신의 몸을 사용한다. 그는 주제, 재료 그리고 물질 자체로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기억과 변형의 장소로, 그리고 신체에 관한 근원적인 사고와 탐구를 시도했다.

안토니 고펠리는 서구전통의 시각 중심적인 관점을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시각중심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대상화, 외부화하는 이성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는 순수 시각에 의해 배제되어온 몸의 영역과 객관적 이성에 의해 배타시되었던 주관적 느낌의 영역을 회복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관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펠리는 첫째, 시각적 주체로서의 주체가 조각가 개념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체를 기반으로 작업에 임했다. 전통적으로 조각가는 대상 모델과 거리를 두고 재료를 앞에 둔채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시각 중심의 주체이다. 반면에 고펠리의 조각에서 작가는 자신의 몸을 도구이자 재료로 사용하는 신체 주체이다. 둘째, 그는 관람자가 작품을 시각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을 기반으로 작품, 관람자를 둘러싼 총체적인 상황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sup>29)</sup> 이는 현상학적 견지에서 신체성에 기반하여 공간을 파악한 메를리 퐁티와 같은 견해이다. 몸이 사물들 중의 하나라고 해서 그저 각각의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

들을 끌어 당겨 바로 자기 자신을 확장해 가며 자신의 영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펠리도 작품, 관람자와 그 밖의 것들을 서로 분리되도록 만드는 시각중심의 경험과 달리 관람자가 봄과 보여짐의 관계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변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들이며 이러한 상황은 관람자의 몸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요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던져진 존재(thrown being)’로서의 나인 셈이다. 이것을 깊이 새기면 그러한 존재가 갖는 남과의 관계 또한 말이나 의식을 넘어 신체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sup>30)</sup>

이는 새 시대의 미술이 드러내는 ‘나’는 무엇이며 또 남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안토니 고펠리의 대답이다. 이를 통해 그가 인간의 몸을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보다 정적이고 침묵적인 상태의 작품을 직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수동적 실체가 아닌 능동적 실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림 5〉 안토니 고펠리, '눈먼 빛 Blind Light' 전시의 설치작품

<http://www.antonygormley.com/>

특히 안토니 고펠리는 몸과의 친밀한 소통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발달한 언어는 몸과의 소통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몸과 몸의 인간적 관계는 사라져 새로운 미술에서 더욱더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친밀성의 소통’을 말하고 있다. 〈그림 5〉<sup>31)</sup> ‘눈먼 빛 Blind Light’ 전시의 설치작품은 유리방 하나를 온통 새하얀 안개로 채워놓아 한 치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 관객이 인체와 공간의 관계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자 만든 작품이라 한다. 공간 안에 유리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수증기로 가득 채워진 자신의 몸조차 인식할 수 없는 공간 안에서 관객들은 지극히 사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 안에서 자아를 인식하고 체험하게 된다.<sup>32)</sup> 즉, 뿌연 안개 속에서 관객들은 유동적인 흐름 속에 혼자 고립되어 가느다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대인의 각자의 소외된 삶 속에서 자신만이 느끼는 극단적 고립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자아의 상태의 사적인 경험을 통해 본질적인 인간자체로서의 몸과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며 대중과의 소통을 하고자하는 안토니 고프리의 신체적 담론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몸을 바깥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여기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그 자신의 관계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험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 2)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치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치(Magdalena Abakanowicz)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에 관심을 두고 인체와 인체를 닮은 현상에 주목한 폴란드 출신의 현대 작가이다. 아바카노비치 작품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형상과 인간적인 내용이다. 인체가 그의 작품이며 실체를 반영한다. 특히 유년시절의 성장기에서의 자연에서의 삶과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서 야기된 전쟁과 죽음이 그녀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아바칸(Abakan)'은 아바카노비치의 섬유조각에 대한 통칭적인 이름이다. 그녀의 자신의 전 작업을 '아바칸(Abakan)'이라 칭하고 있다. 이는 그녀의 삶과 예술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며 자신과 폴란드의 역사를 담고 있는 복합적인 신체 기호라 할 수 있다. 아바카노비치의 신체기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자신의 선조들과 역사를 담고 있다. 둘째, 아바카노비치의 신체와 신체를 형상화시키는 재료에 대한 관심이 담긴 텍스트이다. 셋째, 1970년대 동유럽과 폴란드라는 상황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텍스트이다. 넷째, 인간의 속성 가운데 성이라는 부분을 제거한 중성적 인간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불완전한 실체로 형상화한 텍스

트이다. 이러한 의미의 텍스트들이 상호 텍스트적으로 작용한다.<sup>33)</sup> 중성적 인간의 형상을 나타낸 <그림 6><sup>34)</sup>은 뭉개진 얼굴과 앞과 뒤의 구분이 모호하고 남녀의 구분이 안 되는 중성적 신체 기호로 대표되어 전쟁과 이념, 불안과 자유, 남과 여, 삶과 죽음 등의 모든 대립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보편적인 세계를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

아바카노비치는 재료와 공간의 특성에 대한 지각과 해석을 통해 인간과 환경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작업한다. 특히 작품의 주재료인 천연섬유를 사용하여 자연의 유기성을 유연성, 유동성, 촉각성을 지닌 재료 자체로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유기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섬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풀, 나무, 꽃 등과 연결된 유기적 구조로 바라보며 모발, 피부 세포조직에까지 섬유 구조적 인식을 확대하는 태도에 기인한다. 그녀는 자연을 유기적 구조로 보았으며, 인간의 신경 조직이 지닌 감각 기능과 외부와의 소통 구조로 인식하고 중요시했다.<sup>35)</sup> 그는 인체는 부피가 아니라 표면으로 인식되며 골격과 근육의 힘보다는 신경조직의 감각기관이 갖는 의미가 삶속의 인간관계나 갈등, 감정 등의 소통구조로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그림 7><sup>36)</sup>에서와 같이 인간의 신체 부위를 대신하는 나무의 몸통에서 전쟁으로 인한 고통, 고통, 죽음을 직면한 공포로 뒤덮인 인간의 행위를 엿볼 수 있다. 인간에게 개체성을 부여하는 머리와 활동의 주체가 되는 팔다리가 생략된 채 꾸부정한 어깨와 고뇌에 찬 등을 내보이는 작품들은 삶의 무게에서 비롯되는 상념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인체부위에서' 등은 '짧어진다'는 원래의 속성으로 그것은 인간의 고뇌를 상징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녀의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내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sup>37)</sup>

일부가 잘려져 나가거나 극단적으로 왜곡된 신체를 가진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치의 인간 형상은 그 자체로 표현적이며 실존적이다. 이러한 인간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하는 그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표현한 작품에서의 몸은 과거의 이상화된 신체를 거부하고 순수시각으로부터 표현된 인간자체에 대한 근본정신을 추구하고자하는 개념적 물질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치,  
SEATED FIGURES 2002, burlap, resin, pedestal: steel  
<http://www.abakanowicz.art.pl/>



〈그림 7〉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치,  
Androgyn III 1985, Burlap, resin, wood  
<http://www.abakanowicz.art.pl/>

#### IV. 패션에 표현된 몸에 관한 관점의 비교연구

본 장에서는 몸에 관한 관점에서 사회 구조적 관점의 존 갈리아노와 개인적 관점의 마르탱 마르지엘라 패션을 분류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1. 몸에 관한 관점들

###### 1) 자본주의 소비사회 구조 내에서의 몸

급격한 경제수단의 혁명은 그에 따른 일련의 사회 변화를 야기한다. 18세기말부터 일어난 산업혁명이 19세기 중엽 전 유럽으로 확장됨에 따라 그 여파로 19세기 중반 이후로 도시의 급격한 성장을 이룬다. 이는 단순히 도시의 성장 그 자체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시가 새로운 노동자 계급과 기타 모든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생활과 문화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 시절 금욕과 절제를 생활원칙으로 삼았던 부르주아들은 정치혁명, 산업혁명과 사회의 확실한 지배계급으로 등장하게 되자, 점차 사치와 낭비를 생활화하게 된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부르주아 계급의 남성들을 새롭게 탄생된 계층의 신분의 상징적 역할을 복식에 부여하게 된다. 이들은 과거 귀족적인 의복 기준과 사치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해 여성을 자신들의 상징적 역할을 대신하는 도구로서 여성들에게 복식의 장식성을 부여하게 된다.<sup>38)</sup>

산업화된 사회는 대량의 상품생산과 더불어 인간의 노동력 자체가 상품으로 되는 발전된 형태의 자본주의로 변화한다. 인간노동이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날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동일하고 비교 가능한 추상적 노동이 되어 가면서 이 추상적 노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의 합리화와 그에 따른 사물화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사물화란 인간 특유의 활동이 인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인간에게 낯선 자기 법칙성을 통해 객체적인 어떤 것,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것으로 인간에게 대립된 채 다가온다는 것을 말한다.<sup>39)</sup> 이와 같이 산업혁명 이후 서구사회는 부를 축적하여 새로운 계급을 형성한 남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여성을 소비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상품화·사물화하게 된다. 남성들은 여성을 사물화하여 자신들의 이상적 여성상을 만들어내고, 치장하고 장식함으로써 여성을 자신들의 권력의 기재로 사용하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여자들은 전에는 출입하지 못했던 산업전선으로 불려가기 시작했다. 군대 간 남성들의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 많은 공장들이 여성노동자를 고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 미국의 경제는 팽창했지만 여성들의 일자리를 지키기엔 충분하지 못했으며 다시 가정주부로 돌아와야 했다. 여성들은 일자리를 원하는 남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내구재와 소비재의 수요를 일으켜 경제가 활발해지도록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했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전시경제를 강력한 시장경제로 바꾸어서 완전 고용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당시 패션 사진에 표현된 여성은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으로 완전히 휘감기고 꾸며진 환상적인 신체를 표현하며 여성들에게 직장에서나 어울리는 실용적인 복장을 벗어던지라고 부추겼으며 화려해지고 싶은 여자들의 욕망에 불을 붙였다.<sup>40)</sup>

이와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낡은 사용가치들을 식민화하여 여성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결국 이전에는 질적으로 격리된 것으로 간주되던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예컨대 위대한 예술을 시장에서의 매춘의 대상으로 변화시킨다. 심지어 상품화가 문화-이데올로기적인 영역으로 이행하면서 생겨난 문화산업은 무너지고 가족의 사회화기능을 떠맡아 순응적이면 권위적인 태도를 증진시킨다.<sup>41)</sup>

이러한 사회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소비사회구조와 결합되어 남성의 권력기제로 소비상품과 성적 대상화로서 여성의 몸을 에로틱한 존재로 바라보게 한다. 많은 디자이너들에 패션에서 에로티시즘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왔다. 특히 존 갈리아노의 패션은 여성의 몸이 가진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주제로 지속적인 패션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 2)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몸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경우,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존 갈리아노와 달리 개인적 관점에서 인간 자체의 내면으로 몸을 바라본다.

과거의 몸은 소비의 사회 속에서 물신화한 상품과 함께 설정된 바로 그 관계로서의 몸이었다. 이는 대중적인 몸, 사회에 길들여진 유순된 몸을 만들어내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 몸의 이미지와 사회에 시선과 감시아래 놓여진 역할을 만들어 내었다. 기계적이고 생산적이던 몸은 포스트모던적인 시기로 들어가며 상징적인 매체의 하나로 도발적이며 감각적으로 때론 혐오스럽거나 죽어가는 몸을 제시하며 많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몸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표현되며 또 다른 이미지를 부여 받게 된다. 하지만 이제 몸은 더

이상 상징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에 의해 표현되어지기 보다는 몸 그 자체로 들려지고 그와 함께 유발된 감정들로 몸을 인식한다.

철학자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적 관점에 따르면 신체는 단순히 감각이 이루어지는 것, 혹은 감각의 수용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하나의 능동적인 주체로 보고 있다. 이제는 외부로부터 감시받기 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체를 조정하고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몸은 세계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과의 소통하는 관계로 인식되어 지며 조각가 안토니 고프리 또한 인간의 몸을 몸과 정신을 분리된 것으로 보는 서구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던져진 존재'<sup>42)</sup>로서 보다 본질적인 관계로 몸을 이해한다. 과거의 몸은 하나의 전쟁터와 같았다. 사회적 탄압과 억압 아래 고통 받고 저항하는 몸으로 개인적 자아가 아닌 사회적 타아로서의 몸 이었다. 더 이상 몸은 사회·문화적인 담론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실체이다. 던져진 존재로서 솔직한 자신에 대한 고백이며 자신의 위안이 되는 존재로 내면의 자신을 바라보는 몸으로 파악된다.

이는 몸을 어떠한 사회적 관점 안에 지배받는 여성의 몸이 아닌 자발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의식이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여성의 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표현하여 개인적 관점에서 인간 존재의 내면을 바라보는 패션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마르탱 마르지엘라는 이러한 표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 2. 존 갈리아노와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작품 비교

### 1) 노출

노출은 사전적 의미로 '겉으로 드러남' 또는 '드러냄'의 의미로, 미의 관점에서 인체의 일부분을 의복 밖으로 드러내 보이거나, 인체의 선을 자연스럽게 나타냄으로써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강조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sup>43)</sup> 정신분석학적으로 노출의



<그림 8> Christian Dior, 2005 S/S, John Galliano, 2008 S/S  
www.style.com



<그림 9> Maison Martin Margiela, 2009 F/W, S/S  
www.style.com

미학을 향유하는 인간의 심리를 나르시시즘에서 찾는다. 즉 자기 몸에 대한 사랑과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의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출에 탐닉한다는 것이다.<sup>44)</sup> 패션에서 노출이 가지는 유혹은 남성에 비해 주변인이었던 사회적 여성의 위치가 여성 패션에서 노출이 주요 테마 중 하나로 부각되는 것을 강조해왔다. 즉,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남성에 의한 '바라봄의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는 적극적인 보여짐의 행동으로 노출을 부추기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up>45)</sup> 이와 같이 패션에서의 노출은 이성에게 보여 지는 에로틱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하나의 표현수단이라 할 수 있다.

존 갈리아노는 인위적인 관능미를 표현하기 위해 노출을 통한 에로틱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그는 성적인 흥미를 자극하여 인간의 성에 대한 내면적 욕구를 인체 미학적인 복식을 통해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여성만의 구조적 신체를 최대한 드러내며, 과장되게 노출된 여성의 몸을 통해 남성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에로티시즘을 강조한다. <그림 8><sup>46)</sup>과 같이 네크라인을 깊게

파서 가슴부위로 시선을 끌거나 스커트를 짧게 입어 다리를 드러내는 등 인체의 일부분을 의복 밖으로 직접적으로 보이거나 엇보이게 표현하여 성적 상징의 직접적 노출을 통한 관능미를 나타내고 있다.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깊은 네크라인과 얇고 비치는 소재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슴은 특유의 여성적 매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갈리아노의 패션에서 볼 수 있듯 여성의 성적인 신체부위를 직접 노출하거나, 의복 소재의 투시효과와 밀착을 통해 성적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반면, 마르탱 마르지엘라는 여성의 몸을 인위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몸의 가장 솔직한 표현으로 몸을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몸 전체를 감싸 복식에서 드러나는 남성 대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이나 성구분이 통합적 이미지로써 중성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sup>47)</sup>와 같이 얇은 소재의 활용으로 전체를 간접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쉬폰이나 레이스 등을 통해 인체의 유기적인 흐름에 따르는 인체의 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그의 표현은 남성과 여성의 몸을 구분지어 바라보기 보다는 몸 그 자체를 드러내어 성의 모호함을 불러오는 자유로운 표현으로 바라볼 수 있다.

## 2) 실루엣

실루엣은 검은 종이를 가위로 잘라 얇은 색 대지 위에 붙인 값이 싼 옆모습 초상화를 제작하도록 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 후 모든 사물의 외곽선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고, 특히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는 흑백으로 된 회화와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표현한 여러 형태의 미술을 일컫는다.<sup>48)</sup> 복식에서 실루엣이란 패션의 외형선, 즉 의복의 전체적인 윤곽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패션의 표면선과 외계와의 접촉면을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즉 의복의 외곽선에 대한 2차원적 평면의 영역으로, 개별적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하며 패션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sup>49)</sup> 실루엣은 일반적으로 익명의 사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곤 하는데 그것은 실루엣이 갖는 규정지을 수 없음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비록 구체적인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체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가려진 속성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유발시킬 수 있다.<sup>50)</sup>

존 갈리아노는 소비문화의 성적 물신화된 여성을 아름답고 관능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으로서의 몸을 구현하기 위해 <그림 10><sup>51)</sup>와 같이 인위적인 구조물을 이용한다. 특유의 여성만이 지닌 유연함과 부드러운

움을 표현하기 위해 가는 허리와 풍만한 가슴을 보다 확대하고 과장하여 실루엣을 강조한다. 코르셋으로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를 중 모양으로 과장되게 부풀려 곡선 실루엣을 이루고, 퍼프(puff)가 들어간 부풀려진 소매로 어깨를 강조한다. 이러한 과장된 X실루엣은 여성이 갖는 신체적 특징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며, 몸의 왜곡된 가시적 표현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여성의 아름다운 관능미를 나타낸다.

반면,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실루엣은 표현방법이나 착장법에 있어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실루엣을 강조, 과장하기보다는 <그림 11><sup>52)</sup>과 같이 몸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체를 고려한 착장법으로 표현한다. 의도적 형태를 거부하고 의복을 분할하여 다시 붙이거나 다는 등의 재구성, 또는 천 하나로 몸의 구조적 형태 표현, 어깨선의 독특한 실루엣 표현 등은 새로운 사고의 형식으로 인체의 구조적 형태와 흐름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실루엣의 몸의 표현은 자유롭고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 3) 장식

복식에서 장식의 개념을 살펴보면 '무엇을 치장



<그림 10> Christian Dior, 2009 S/S, John Galliano, 2009 F/W www.style.com



<그림 11> Maison Martin Margiela, 2009 S/S, 2008 S/S, 2007 F/W www.style.com

한다'는 뜻으로 라틴어의 'ornatus'에서 유래한 'ornament'가 장식의 용어로서 '장신구' 또는 '장식무늬'의 의미로 쓰인다. 또한 장식은 어떤 면 위에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장식은 복식에 첨가되는 요소이며, 그 자체로서 독립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지만 다른 사물과 잘 조화되어 나타날 때에는 미적 통일체로서 뿐만 아니라 그 본래 고유의 미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된다.<sup>53)</sup> 또한 장식은 일상적인 사용품을 목적에 합당하게 하며 아름답게 형태화해서 거기에 인간적인 것의 인장을 각인하려는 필요에서 발생한다. 즉 장식은 예술적 경험에 대한 창조적인 충동으로, 장식한다는 것은 대상을 매력적이게 하는 것이나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4)</sup> 복식에 있어서 장식의 역할은 시각적 쾌감을 주는 형태적 측면, 공간공포와 불안감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서의 심리적 측면,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측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sup>55)</sup>

존 갈리아노의 장식은 패션의 컨셉, 디자이너의 의도를 중심으로 컬렉션마다 테마에 맞는 화려하고도 다양한 장식성을 나타낸다. 존 갈리아노는 과장되고 인위적인 실루엣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화려하게 많은 다양한 러플, 프릴, 레이스, 주름 장식, 헤

어 악세서리 등의 장식물들을 의복에 부여하고 있다. <그림 12><sup>56)</sup>과 같이 주름의 형태, 진주, 루비, 에메랄드 등의 보석, 과도한 비즈, 꽃, 깃털, 금박 장식 등 극도의 화려한 머리장식과 초대형의 러플, 리본 장식은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남성의 부와 계급의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나타난 과시적 사치성을 보여준다. 또한 고급 소재와 화려한 수공예적 자수, 과도하고 풍부한 디테일과 트리밍의 장식 등은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여성의 에로틱하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반면, 마르탱 마르지엘라는 어떠한 상징적이거나 예술적인 측면에서 나타내기 보다는 의복의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면서 존 갈리아노와 같은 과도한 장식물, 다양한 디테일의 변화 보다는 <그림 13><sup>57)</sup>과 같이 몸과 의복의 구조적 형태에 관심을 표현한다. 재활용을 통한 재창조된 요소와 가능한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한 채, 인체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비대칭과 여밈의 자유로운 이동 등의 디테일적 요소를 통해 자유로운 조형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 몸의 구조적 특징을 표현하는 이미지, 단순한 디테일의 장소 변이, 몸의 변형된 형태 표현이라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더욱 주목하였으며 몸과 의복이 드러내는 본연



<그림 12> Christian Dior, 2005 S/S, John Galliano, 2009 S/S, F/W, 2008 S/S  
www.style.com



<그림 13> Maison Martin Margiela, 2007 S/S, 2009 F/W  
www.style.com



의 모습을 충실히 표현하였다.

#### 4) 메이크업

메이크업의 사전적 의미는 ‘만들다’, ‘보완하다’라는 뜻이며, 자기 보호와 장식적 의미가 부여되었던 메이크업은 인간의 미적 본능과 끊임없는 욕망에서 자기표현의 중요한 수단중의 한 방법이었다.<sup>58)</sup> 메이크업은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으로 재료 등에 구속 받지 않고 인간의 육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디자인 한다는 뜻으로 그 방법이 다양하여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점에서 내적인 정신 세계를 외적 감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59)</sup> 현대에 이르러 패션과 유행에 흐름에 합류해 단순히 몸과 얼굴을 예쁘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 헤어스타일, 액세서리와 함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가치관과 상황 등을 표현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재료나 기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등의 중요한 창의적인 표현도구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sup>6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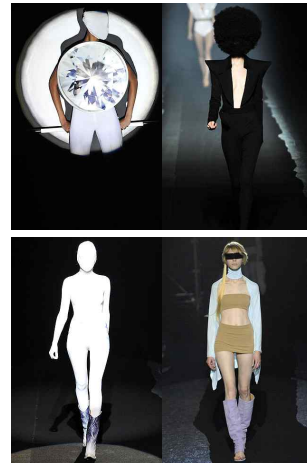
존 갈리아노의 메이크업은 의복과 장식에서도 나타나듯 디자이너의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는 강한 색과 선명한 선 등을 통해 눈과 입을 강조

하여 여성의 에로틱한 부분을 관능미 넘치게 표현하였다. <그림 14><sup>61)</sup>과 같이 선명히 드러나는 강렬한 색의 콘트라스트, 화려한 색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컬러 베색 등 다양한 색을 사용함으로써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다. 하얀 피부에 짙은 화장으로 립스틱은 주로 붉은 계열로 글로시하게 연출하였으며, 과장된 아이라인과 마스크라로 눈매를 더욱 강조한 과장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볼터치로 광대뼈의 윤곽을 부각시켜 인상을 강하게 함으로써 강렬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욕망의 기호를 매개로 하는 에로틱한 이미지는 남성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색상의 풍요로움, 강한 색채 대비의 메이크업으로 화려하고 매혹적인 인상은 에로틱한 몸을 강조하고 소비사회의 욕망의 대상으로 성적 상품화를 부추긴다.

반면, 마르탱 마르지엘라는 화려하고 강한 화장보다는 거의 하지 않은 듯한 메이크업이나, 때론 눈을 가리고, 얼굴에 가려 표현한다.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이나 메이크업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상태로써 의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얼굴에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고 얼굴도 인체 중 하나의 형태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메이크업이



<그림 14> Christian Dior, 2007 S/S, John Galliano, 2009 S/S, 2007 F/W  
www.style.com



<그림 15> Maison Martin Margiela, 2009 S/S, 2008 S/S  
www.style.com

없는 얼굴, 바디 페인팅을 통해 몸과 의복의 경계를 구분 짓지 않는 모호함을 표현한다. <그림 15><sup>62)</sup> 표정을 알 수 없는 모델의 얼굴은 기능적 아름다움을 표방하는 여성의 몸이 아닌 추상적 존재로서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 V. 결론

앞서 살펴본 몸에 관한 다양한 철학적 담론과 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몸에 관한 관념의 두 가지 큰 흐름은 여성의 몸을 자본주의 소비사회구조 안에서 남성의 권력기재로 소비상품 및 성적 대상화로 바라본 관점과 몸 자체를 개인적 차원으로서 인간 자체 내면으로 바라본 관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존 갈리아노의 패션과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패션에 극명하게 나타나며 두 가지 패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가지 패션을 분석한 결과, 노출, 바디 컨셔스, 장식, 메이크 업에서 다음과 같은 대조를 보였다.

첫째, 존 갈리아노는 인위적인 관능미를 표현하고자 여성만의 구조적 신체를 최대한 드러내며, 과장되게 노출된 여성의 몸을 통해 남성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에로티시즘을 강조한다. 반면, 마르탱 마르지엘라는 여성의 몸을 인위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몸의 가장 솔직한 표현으로 몸을 그대로 노출 시킴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몸을 구분지어 바라보기 보다는 몸 그 자체를 드러내어 성의 모호함을 불러오는 자유로운 표현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둘째, 존 갈리아노는 소비문화의 성적 물신화된 여성을 아름답고 관능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으로서의 몸을 구현하기위해 인위적인 구조물을 이용하여 여성만이 지닌 가는 허리와 풍만한 가슴을 보다 확대하고 과장되게 표현하여 바디 컨셔스 라인으로 실루엣을 강조한다. 반면, 마르탱 마르지엘라는 강조, 과장으로 바디 컨셔스 라인을 표현하기 보다는 몸을 하나로 통합하여 의도적인 형태를 거부하고 의복을 분할하여 다시 붙이거나 다는 등의 재구성을 통해 몸의 실루엣을 표현하는데 있어 자유롭고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존 갈리아노는 과장되고 인위적인 실루엣을 구성하고 유지하기위해 화려하고 과도하게 많은 다양한 러플, 프릴, 헤어 악세서리 등의 장식물들을 의복에 부착함으로써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남성의 부와 계급의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나타난 과시적 사치성을 보여준다. 반면, 마르탱 마르지엘라는 어떠한 상징적이거나 예술적인 측면에서 나타내기 보다는 의복의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채 몸과 의복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충실히 표현하였다.

넷째, 존 갈리아노는 강한 색과 선명한 선 등을 통해 눈과 입을 강조하여 여성의 에로틱한 부분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남성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강한 매혹적인 인상을 부여한다. 반면, 마르탱 마르지엘라는 화려하고 강한 화장보다는 거의 하지 않은 듯한 화장으로 때론 얼굴을 가려 표현함으로써 얼굴 표정이나 화장에서 보여 지는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 상태에서 의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으며, 바디 페인팅을 통해 몸과 의복의 경계를 구분 짓지 않는 모호함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몸을 사회적 자본주의에 의해 소비의 대상이자, 남성의 권력 기재안의 성적인 대상물로서 바라 본 관점의 존 갈리아노 패션은 인위적으로 의도된 주관적 전달의 표현 방식의 기능적 아름다움으로 보여 진다. 반면, 인간 본연 자체의 모습으로 인간적 관심을 몸으로 돌려 그와 함께 유발된 감정들로 몸을 인식하여 바라 본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패션은 의복의 객관적인 전달에 의해 착용자가 주관적으로 의도된 표현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몸과 소통하는 하나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보여 진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여성신체가 가진 고유 여성미를 가장 잘 표현한 존 갈리아노의 패션이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에 의해 사랑받아 오고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소비문화에 의해 남성의 지배권력 안에 만들어진 여성의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다하더라도 존 갈리아노의 패션은 현존하고 있으며, 여성만의 고유 특성을 파악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관점은 두 디자이너에 대한 평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몸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통해 패션을 이해하는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은 다양한 생각을 유발시켜 디자인 창작 활동을 보다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인간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자신을 조정하고 조절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나,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틀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인간의 양면적 가치가 패션에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몸을 전일적 개념으로 이해한 개인적 관점을 보다 새로운 사고를 유발하고 다양한 패션을 제시하는 패션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몸을 권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이해한 사회적 구조적 관점을 몸의 통제를 통해 대중의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의 보편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관점은 패션에 나타난 몸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여성의 몸에 대한 표현을 전개하는 다양한 발상 방법을 자극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최옥선 (2005). *여성의 몸 담론과 성형담론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여성잡지의 기사와 성형의류광고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신혜영 (2004). *M.메를로-퐁티의 지각이론과 회화론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자료검색일 2009. 6. 26, 자료출처 <http://www.artiaco.com/home/bbs/tb.php/artnews/285>
- 4) 김미영 (2007). *현대 조각에 나타나는 신체 이미지 연구: 1960년 이후의 조각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 5) Shilling, C. (1993). *The Body and Social Theory*. 임인숙 역 (1999). *몸의 사회학*(초판). 파주: 나남출판, pp. 115-116.
- 6) 이혜미 (2006). *현대사회에서 이미지 재현의 문제: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개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4-25.
- 7) Baudrillard, J. (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이상률 역 (2004). *소비의 사회: 그 신화의 구조*. 서울: 문예 출판사, pp. 190-194.
- 8) 박대진 (2003). *소비사회에서의 '재현'의 위기와 이데올로기 비판의 가능성: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3.
- 9) 박혜원 (2003). *성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젠더관계': <남성 지배>를 중심으로*. 숙명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1.
- 10) 현영삼 (1990). *M.Merleau-Ponty 현상학의 지각, 신체, 자유의 문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8. 데카르트는 이른바 보편적 회의에서 출발한다.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모든 불확실한 것 의심하는 것을 방법적 회의라 했는데, 모든 것 의심했으나 의심하는 '나'를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의심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모든 것을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확실하다는데 이른 것이다. 그는 이 결론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란 명제로 표현한다. 따라서 그는 여기서 이 명제를 철학의 제1원리로 세웠고,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 11) 김성희 (2006). *20세기 후기 미술에서 신체 기호의 의미 분석과 해석: 아바카노비치와 키키 스미스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0.
- 12) 신혜영. *앞의 책*, p. 13.
- 13) 강미라 (2008). *메를로 퐁티의 몸-주체와 푸코의 몸-권력 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7.
- 14) 신혜영. *앞의 책*, p. 13.
- 15) 김성희. *앞의 책*, p. 81.
- 16) 이은아 (2005). *관객의 영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메를로-퐁티 몸 현상학에 기반한 소브체 영화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17) 김지영 (2006). *피포먼스의 표현매체에 관한 연구: 매체별 작가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3-44.
- 18) 지노 가오리키野香織 (1999). *모리무라 야스마사가 연기는 여성들*. 한림미술관·이대 기호학연구소(역음). *몸과 미술(1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189.
- 19) 자료검색일 2009. 4. 9, 자료출처 <http://www.crazy-art.co.kr>
- 20) Bryson, N. (1999). *현대 미술의 사라져 가는 몸*. 한림미술관·이대 기호학연구소(역음). *몸과 미술(1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95.
- 21) 김민정 (2004). *사회적 힘으로 은유된 신체표현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9.
- 22) 위의 책, p. 20.
- 23) 지노 가오리키野香織. *앞의 책*, p. 182.
- 24) 주민선 (2008). *바바라 크루거(Babara Kruger)의 텍스트 화법 연구: 19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8.
- 25) 한성의 (2004). *소비사회에서 보여지는 여성 이미지의 표현에 관하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12.
- 26) Mirzoeff, N. (1995). *Bodyscape*. 이필·이윤희 역 (1995). *바디스케이프: 미술, 모더니티 그리고 이상적인 인물상*. 서울: 시각과 언어, p. 22.
- 27) 주민선. *앞의 책*, p. 54.
- 28) 위의 책, p. 25.
- 29) 김은영 (2005). *Antony Gormley의 인체조각에 표현된 신체담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 27-28.
- 30) 이한수 (2008. 3. 3). "[새로운 문명이 온다] [6] 미술은 친밀한 소통을 원한다".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09. 6. 30,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03/200803030010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03/2008030300106.html)
- 31) 자료검색일 2009. 6. 30, 자료출처 <http://www.antonnygormley.com/>
- 32) 자료검색일 2009. 6. 30,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kamiu00/90028719703>
- 33) 김성희, *앞의 책*, p. 162.
- 34) 자료검색일 2009. 7. 2, 자료출처 <http://www.abakanowicz.art.pl/seated/Postac-Siedcaca-tyl.php>
- 35) 임모나 (2002). *Magdalena Abakanowicz의 작품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6.
- 36) 자료검색일 2009. 6. 25, 자료출처 <http://www.abakanowicz.art.pl/seated/Postac-Siedcaca-tyl.php>
- 37) 김정현 (2007). *Magdalena Abakanowicz의 작품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
- 38) 이민선 (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0.
- 39) 김문환 (1998). *19세기 문화의 상품화와 물신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43.
- 40) John Pultz (1995). *The Body in Photography*. 박주석 역 (2000). *사진에 나타난 몸*. 서울: 예경, pp. 102-103.
- 41) 김문환. *앞의 책*, pp. 135-136.
- 42) 자료검색일 2009. 6. 25, 자료출처 <http://www.artiac.com>
- 43) 최현주 (2006). *20~30대 여성의 노출의상 착용현황 및 구매행동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44) 임성민, 박민여 (2004). 패션의 노출과 은폐에 관한 고찰: Freud의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11), pp. 1395-1403.
- 45) *위의 책*, p. 1396.
- 46) 자료검색일 2009. 7. 13, 자료출처 [www.style.com](http://www.style.com)
- 47) 자료검색일 2009. 7. 13, 자료출처 [www.style.com](http://www.style.com)
- 48) 조우연 (2008). *실루엣 이미지를 통한 현대인의 소외에 대한 연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 49) 조말희 (2007).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과 시각적 평가 연구: 2000년 이후 현대패션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1.
- 50) 조우연. *앞의 책*, p. 4.
- 51) 자료검색일 2009. 7. 13, 자료출처 [www.style.com](http://www.style.com)
- 52) 자료검색일 2009. 7. 13, 자료출처 [www.style.com](http://www.style.com)
- 53) 송부희 (2007). *근세복식에 나타난 장식변천 및 의복의 음·양 이미지와 장식과의 연관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54) 박샛별 (2000).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 55) *위의 책*, p. 22.
- 56) 자료검색일 2009. 7. 15, 자료출처 [www.style.com](http://www.style.com)
- 57) 자료검색일 2009. 7. 15, 자료출처 [www.style.com](http://www.style.com)
- 58) 박은경 (2006).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해체주의적 표현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59) 윤임숙 (2007). *패션트렌드에 따른 뷰티디자인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7.
- 60) 박주연 (2008).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미래주의적 특성*.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 61) 자료검색일 2009. 7. 2, 자료출처 [www.style.com](http://www.style.com)
- 62) 자료검색일 2009. 7. 2, 자료출처 [www.style.com](http://www.style.com)